

# 국내외 정세 불안 속 현장 소통·민생 챙기기 집중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지난 17일 제275회 정례회를 끝으로 한 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

국내외 정세 불안과 기록적 폭염·폭우 등 시민 경제를 위축하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은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제민자산(濟民之產)의 마음으로 현장 소통과 민생 챙기기에 한 해를 묵묵히 집중해 왔다.

남원시의회는 2025년도 한 해 96일간 총 6회의 회기 운영으로 조례 제·개정안 123건을 포함해 예산·결산 및 기금 22건, 동의안 30건, 기타 66건 등 총 23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폭넓게 다뤘다.

특히, 62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입법 활동이 꾸준히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인 간담회



병충해 현장점검

## ▶ 김영태 의장의 소회



### ▲생생적인 견제와 감시

남원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생생적인 견제,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앞장섰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상대적 형평성 강화,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 확보, 스마트팜·곤충산업 등의 미래 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일반시민단체 기업유치 상황 점검 등 총 61건의 시정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정책변화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결과에 따른 대책, 남원시 농업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남원 시민의 한 해를 책임질 예산안을 세밀하게 살펴 2026년도 예산 1조588억원을 확정·의결했으며, 연구용역비, 먹거리 대행 용역, 단계적 추진 검토가 필요한 시설비 등을 포함한 예산 총 49억3,400만원을 최종 삭감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했다.

### ▲민생 경제 집중

녹색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남원시의회는 올해 내내 민생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강화했다.

며 재배면적 조정제 대응,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업예산의 확보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과 회기 중 집행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생활물가와 지역경제,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을 세심히 짚어가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키려는 의회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올해 의정활동을 관통한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다.

## “시민 삶 도움되고자 차분하게 한 걸음씩

한 해 동안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뜻을 모아 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정세 불안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의회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때문이라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자평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병오년 새해에는 열정적인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의회는 새해에도 시민 결에서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촉구 서한 전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토론회

## 조례 제·개정안 등 총 231건 안건 처리 시민생활 밀접 현안 다뤄 62건 조례안 의원 발의... 의원 개개인 전문성 토대 입법활동 강화 공공의대법·제2중앙경찰학교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전력

### ▲적극적인 시민 소통

남원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민 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남원 농업인단체 협의회를 필두로 양파연합회, 품목별 연구단체, 포도 신제품 재배 등 각종 농업관련 단체들과의 간담을 통해 농업에 산 확대와 농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또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건설업체와 간담, 장애인 가족 및 복지단체, 춘향문화선양회 만안정신문화선양회, 남원시 체육회 등 다양한 단체들의 현안이 자연스럽게 의회로 모여들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시민과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민의를 대변했다.

더불어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 현장을 직접 찾았다.

봄철 산불진화대의 고된 현장을 응원하고, 여름철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수확기 벼 병해충 피해현장을 찾아 적기 방

제와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 합파우 지방정원 조성, 민인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시정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갔다.

### ▲지역 현안 주력

남원시의회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 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공공의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4월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전국에 알렸고, 제273회 정례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어 10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제안·채택하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민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시민들과 함께 국회 상경 집회와 대토론회에 참여하고,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남원의 입지적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유치 당위성을 확산시켰다.

이울러, 현지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후보지로 남원이 선정됨에 따라 초고압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의회에 구성하고, 12월 16일에는 송전탑전설백지화 남원대책위와 함께 국회 앞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등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 ▲공부로 깊이를 더한 의정역량

의회는 한 해 동안 '공부하는 의회'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왔다.

의원들은 △도시재생 발전연구회 △문화유산 관광 발전연구회 △스마트농업 발전연구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남원 연구회 △전국 좋은축제 탐방을 통한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 모임의 관심 분야별 5개 연구단체를 구성해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의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연구용역 추진과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연구 범위를 넓히는 한편,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회 교육과 의정연수 및 연찬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남원=김기투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단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단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